

컴퓨터로 찍어내는 내 정신의 궤적

글쓰기와 글치기

하재봉

시인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화사회로 불리우는 지금, 이 시대에서, 글을 쓰는 '방법의 차이'는 각각 어떤 결과로 나타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이 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나는, 연필·볼펜·만년필과 원고지에서부터 시작되어 타자기를 거쳐 데스크탑·휴대용 랩탑·자동충전식 노트북과 컴퓨터 프린터로 변모되어온 지난 18년동안의, 나 자신의 글쓰기의 변모를 말해보고자 한다. 그 편이 글의 핵심에 접근하는 데 훨씬 용이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모는 사실, 지난 2·30년간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내가 처음 만져본 전화는 몸체의 오른쪽에 회전손잡이가 달려 있는 공전식이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손잡이를 잡고 5.6회 회전을 시켜야만 비로소 연락이 가능했던 공전식에서, 수화기를 들면 교환원이 나오던 반자동식, 그리고 다시 현재의 다이얼 그것도 전자식 버튼으로 바뀌고 있지만 자동식으로 바뀌지는 전화기의 변천사는 다른 일상생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펜과 종이에 민감했던 글쓰기

나는,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글쓰는 도구와 관련된 것에 매우 민감하다. 가령, 젊은날 나의 가장 큰 욕망 중의 하나는, 잉크가 스며들지 않는 매끄러운 지질의 원고지와 손의 감각에 착 달라붙어 마치 손가락의 하나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만년필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의사 지바고」 영화를 보고난 뒤에도 내가 가장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던 것은, 지바고 역으로 나온 오마 샤리프가 전란을 피해 눈덮인 농가로 피신한 뒤, 새벽에 일어나 먼지덮인 책상을 치우고 퐁퐁 언 손을 호호 불며 '라라'에 관한 시를 쓰던 장면이었다. 그가 펜으로 잉크를 찍어, 수많은 파지를 만들며 흰 종이 위에 시를 쓰던 그 모습은, 그대로 나의 가슴 속으로 전염되어 나를 며칠동안 들뜨게 했다. 또 대학시절, 이문재, 안재찬, 박덕규 이런 악동들이 어디에서 못보던 원고지를 들고 오면, 먼 길을 마다않고 그곳까지 달려가 새로운 원고지를 구해 시를 썼다. 언제, 어디에 가도 나는 항상 새로운 원고지를 찾거나 좋은 필기구를 찾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길가 문방구에서 팔던 그 흔한 200자 원고지가 나중에는 아주 새로운 분위기로 다가올 정도로, 나는 철저하게 새로운 원고지를 찾아 글을 썼다. 400자, 600자, 800자 원고지들과 네모칸에 붉은색, 주황색, 푸른색, 코발트색 등 다양색으로 인쇄된 원고지들, 각 대학 앞 문방구에서 팔던 그 대학 특유의 원고지들을, 나는 빠짐없이 수집을 했다. 마치 새로운 원고지에 시를 쓰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성으로 눈에 번쩍 떠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또 필기구는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연필을 곱게 깎았다. 목질이 생전에 그렇게 단정하게 연필을 깎아 시를 썼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그것은 그의 시 속에도 나오는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연필의 검정심을 날카롭게 깎아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글을 써내려갈 때의 기분은 고전적인 것이었다. 그러다가 볼펜으로, 다시 만년필로, 만년필도 파이프트 제품부터 아피스, 파카, 몽블랑 등 각종 수입제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섭렵을 했던가. 학창시절 비싼 것은 감히 엄두도 못내던 상황이었으므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도 손에 익숙하게 맞는 그런 만년필을 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따라 달라서, 가령 이문재는 꼭 아피스 제품의 만년필을 고집했다. 울퉁불퉁한 몸체에다가 유난히 기다란 펜촉, 그리고 차갑고 무거운 금속성의 만년필을 그는 고집했는데, 나는 어느 편이었느냐 하면, 가느다란 것을 선호했다. 파이프트 제품의 새끼손가락 굵기의 가는 만년필을 나는 1년여 가지고 다녔는데, 아마 그것이 내가 가장 오래 쓴 기록일 것이다. 나는 무척이나 자주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만년필을 자주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니까.

'쓰기'에서 '치기'로의 혁명적 전환

그러던 내가, 글쓰는 방법의 혁명적 전환을 한 것은, 80년초였다. 그때 나는 막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들떠 있을 때였는데, 어느날 친구가 다방에 들고 온 타자기를 보고 났을 잃어버린 것이다. 다방 구석에서 30분 정도 자판을 더듬거리다가, 결국 시끄럽다는 종업원의 호령에 쫓겨날 때까지 나는 자음과 모음을 서툴게 번갈아

두드리면서, 4벌식으로 된 타자기에 익숙치 못해 받침을 쳐야될 자리에 머리글자를 치기도 하면서 타자기에 찍혀져 나오는 기계화된 글자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것이, 내가 글쓰기에서 글치기로 변화된 첫번째 모습이다.

그후 나는 당장 크로바 타자기를 구입해서, 8년동안 나의 분신처럼 항상 오른손에 그 가방을 들고 다녔다. 꼭 글을 쓰지 않아도 그 가방을 들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가슴 한쪽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언제나,

처음 타자기로 시를 '칠' 때, 나는 연필이나 만년필로 시를 '쓸' 때보다 훨씬 시의 리듬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시의 운율이 딱딱해지는 대신 이미지, 회화성 이런 것들은 강화되었다. 시를 '쓸' 때는 아무리 빨리 써도 손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속의 생각이 훨씬 정리되어서 나온다.

어느 곳이나 그 가방을 들고 다녔다. 처음에는 양 손가락의 검지만으로 톡톡 두드리던 솜씨에서 제법 다섯 손가락을 모두 움직여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는 많은 발전을 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군대에 가서도 처음에는 '타자병'이란 보직을 맡았으니까.

그러나 결벽증 때문인지 나는 타이프를 두드리다가 중간에 오자가 나오면 그 종이를 뿔아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겨우 힘들게 시를 두들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오자가 나면, 할 수 없이 그것을 찢어 버리고 다시 새로운 종이를 끼운 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왜 그 종이 위에 지우고 다시 쓰면 안되는가. 그러나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시는 깨끗하게, 오자 한자 없이, 지우거나 고친 흔적없이 순결하게 그렇게 글자가 찍혀 나와야만 했다.

내가 컴퓨터를 구입한 것은 87년 가을이었다. 나는 그때 우연히 송현 시인을 만났는데,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컴퓨터로 글을 쓰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대뜸 나보고 타자기를 칠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렇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일시불로 컴퓨터를 구입할 만한 돈도 없었고, 또 형광등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가 컴퓨터라는 그 복잡한 기계를 다룰 수 있으리라고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그것을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청계천에 있는 컴퓨터 전문가게를 소개해 줄 테니까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그것으로 구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사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결국 나는 데스크탑형 16비트 XT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는 안산, 그 먼 곳까지 차를 타고 와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처음 쓴 프로그램은 보석글 2였다. 그때 막 보석글 1에 이어 2가 나왔을 무렵인데, 그가 가르쳐준 보석글 프로그램으로 나는 89년말, 영국제 암스트라드 16비트 XT 랩탑형 컴퓨터를 살 때까지 글을 썼었다. 내가 집에 데스크탑형 컴퓨터를 놔두고 다시 랩탑을 산 이유는,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는 도대체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아무리 급한 원고가 있어도 하루종일 멍하게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갈 시간만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이러한 일과가 너무나 비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용산전자상가를 뒤져 제일 값싸고 성능 좋은 랩탑을 구한 것이다. 비록 화면이 LCD라서 햇빛 아래서는 희미하게 빛이 났지만, 5.5Kg의 무게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출퇴근할 때 꼬박 들고 다니면서, 툴툴이 글을 쓸 수가 있었다.

아마 랩탑을 산 것과 비례해서 나의 원고량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주로 시만을 썼는데, 랩탑을 사면서부터 일반 산문까지 쓰게 되었다. 아니, 당시 「현대시학」에 연재하던 시론 '태양의 열쇠'가 나의 컴퓨터 편력기를 부채질했는지도 모른다. 매달 60매에서 100여매 되는 산문을 꼬박 쓰러니까 랩탑이 필요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91년초,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현대문학상 시상식에 갔다가, 평론하는 흥정선형이 갑자기 나를 구석으로 끌고가 조그만 가방을 열고 노트북형 컴퓨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본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무겁고 커다란 랩탑이 너무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치 조그만 워크맨과 커다란 진공관식 라디오의 차이같았다. 나는 당장 랩탑을 처분하기로 했다. 그래서 평론하는 후배 신현철이 내 중고 랩탑을 가지고 갔고, 신현철이 쓰던 데스크탑은 다시 박덕규에게 가는 신세가 되었다.

데스크탑에서 자동충전식 노트북까지

지금 나는 노트북형 286컴퓨터를 쓰고 있다. 많은 때는 한달에 7·800매 보통은 3·400매씩이 컴퓨터로 원고를 쓴다. 컴퓨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움베르토 에코의 말대로, 컴퓨터는 인류 역사 이래 인간이 생각하는 속도대로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발명품이다. 머리 속에 전광석화처럼 스쳐가는 생각의 한 줄기를 끄집어내어 바로 활자화할 수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어떤 때는 미처 선명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생각들이 손의 속도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오기도 한다.

나는 올해 신춘문에 예심을 보았는데, 내가 본 약 500명의 응모자중, 2/3에 육박하는 수가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로 시를 써서 보내오고 있었다. 10여년전 내가 신춘문에 응모할 때만 해도, 사전에 문화면에 게재되는 글에는 친절하게도, 타자기로 글을 써서 응모하는 것은 피해달라는 내용이 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 당시 왜 타자기로 응모를 하면 안되는가 하는 이유는, 응모자의 정성이 배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단정하게 원고지에 적은 글만이 심사위원의 호감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 심사위원이라는 사람들의 태반이, 타자가가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로 원고를 쓰고 있다. 내가 예심을 본 시의 경우가 이러했는데, 아마 소설의 경우는 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컴퓨터를 이용해 산문을 써본 사람은 쉽게 느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그 편리함이란 문자로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그러나 처음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밤을 새워 새벽 5시까지 힘들게 쓴 원고가, 갑자기 정전으로 일시에 날아가버렸을 때의 절망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노트북형은, 정전이 되어도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작동되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글쓰기'와 '글치기' 사이의 거리

처음 타자기로 시를 '칠' 때, 나는 그 이전 연필이나 만년필로 시를 '쓸' 때보다 훨씬 시의 리듬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시의 운율이 딱딱해지는 대신, 이미지, 회화성 이런 것들은 강화되었다. 이것은 느낌일 뿐이지만, 나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를 '쓸' 때는 아무리 빨리 써도 손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속의 생각이 훨씬 정리되어서 나온다. 또 손과 원고지 사이에는 가느다란 연필이나 만년필, 불과 몇센티미터 안되는 거리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인 자신의 숨결이 그대로 원고지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일 경우, 적어도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는 데다가 손끝에서 글이 쏘여지는 것도 아니고, 손끝으로 자판을 두드리면 화면이라는 또다른 곳에 글씨가 나타난다. 적어도 그 거리만큼 시인과 글의 거리가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 타자기와 컴퓨터로 적응실험을 하다가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펜과 종이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고 편하게 글을 쓴다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는 보석글이나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문서작성 정도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불과 2,3년 안쪽에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정보화사회로 진입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의 이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글치기'는, 단순히 문서작성 정도에서 벗어나 온갖 정보를 집대성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놀랄 만한 수준으로 격상되어 이용될 것이다.

손바닥 수첩만한 휴대용 컴퓨터가 개인당 하나 이상씩 보급되고, 그 작은 컴퓨터를 통해 무선전화와 무선팩시 및 원고작성 등 문서관리 뿐만 아니라 현재 마그네틱 테이프로 되어 있는 비디오의 기능도 디스켓으로 전환되어 컴퓨터의 화질이 TV 수준 이상으로 선명한 색상을 나타낼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종이책에서 디스켓책 - 전자책으로 책의 개념도 상당부분 전환되리라고 나는 예상한다. 우리의 출판시장 또한 1,2인치 내외의 작은 디스켓 시장으로 전환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것이다. 수십권의 대형 백과사전 속에 수록된 정보가 조그만 CD롬 하나에 기억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글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생존방법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를 이용한 '글치기'가 단순히 문서편집에만 그칠 것은 아닐 것이다.

